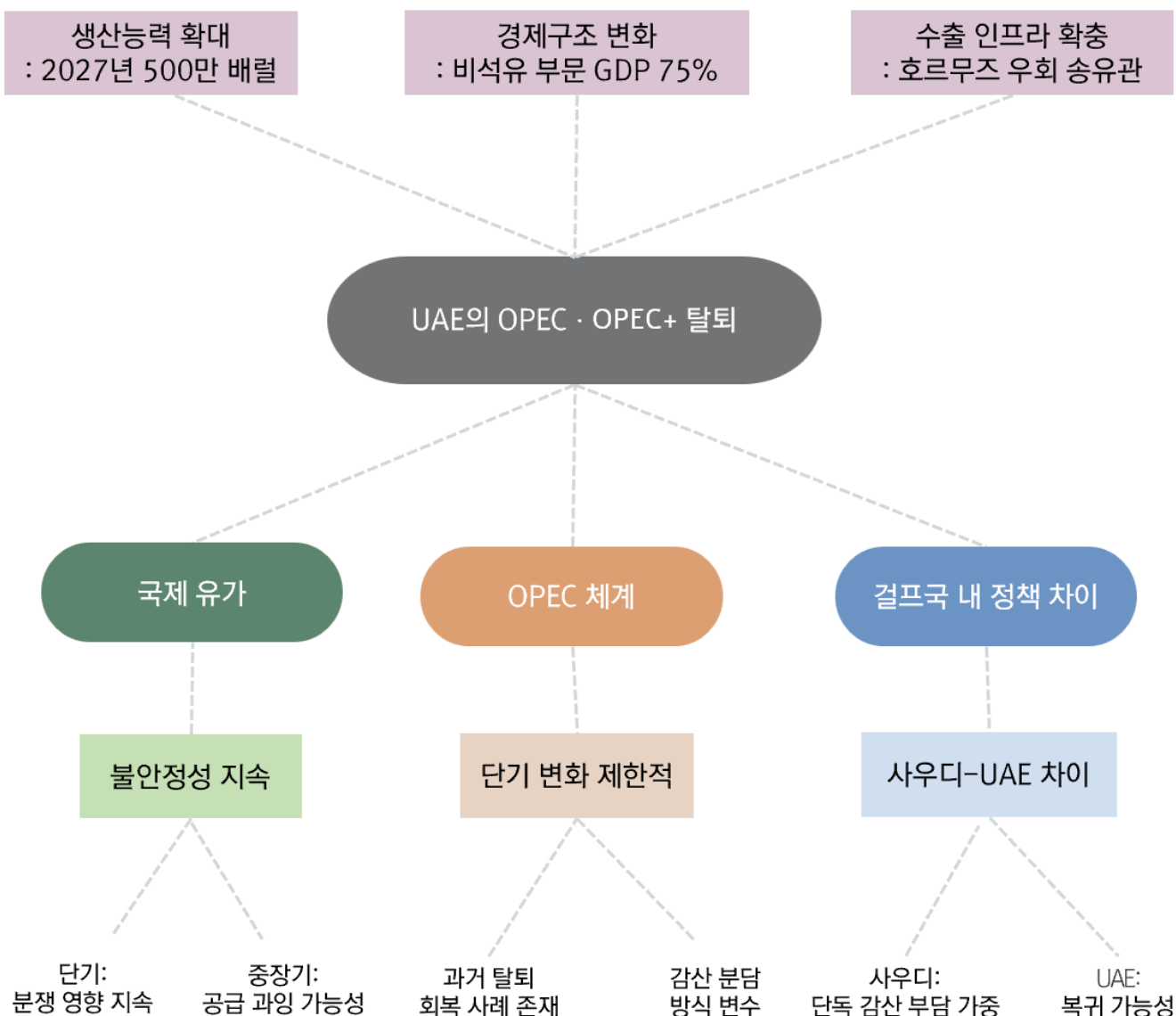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보는

UAE의 OPEC·OPEC+ 탈퇴와 국제 원유시장 영향

(*) UAE의 OPEC · OPEC+ 탈퇴 이슈 1,182건
(2026.04.28. – 2026.05.26)



UAE의 OPEC·OPEC+ 탈퇴와 국제 원유시장 영향

〈핵심 요지〉

- UAE는 2026년 4월 28일 약 60년간 유지해 온 OPEC·OPEC+ 회원국 지위에서 5월 1일부로 탈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UAE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생산역량 확대, 비석유 부문 중심의 경제 다변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수출 인프라 구축이 자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은 회원국별로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OPEC+ 체제와 차이를 보이며, 이번 탈퇴를 통해 표면화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가격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걸프 지역 생산 정상화와 UAE의 추가 공급 확대로 글로벌 원유시장이 다시 공급 과잉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향후 OPEC·OPEC+의 공급 통제력은 잔여 회원국의 감산 분담 방식과 UAE의 생산 확대 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공급 환경의 변화와 국제유가 흐름이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UAE의 생산능력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우회 수출 경로 구축은 원유 도입 경로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나, OPEC+ 운영 방식 변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에너지 수입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 측면에서는 중동 분쟁 종료 시점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추이, 중장기 측면에서는 UAE의 실제 생산 확대 일정과 OPEC 잔여 회원국의 정책 대응 방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UAE의 OPEC·OPEC+ 탈퇴 발표

국제 유가 및 중동 에너지 시장 동향

UAE는 2026년 4월 28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및 OPEC+** 체제에서 5월 1일부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UAE는 1967년 OPEC에 가입한 뒤 약 60년간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탈퇴 발표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이루어졌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통항이 제한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었고,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었다.

수하일 알 마즈루이(Suhail Al Mazrouei) UAE 에너지부 장관은 2026년 5월 16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국가 생산정책과 향후 생산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자, 정치적 요인이나 회원국 간 분열과는 무관한 주권적·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하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대규모 여유 생산능력(spare capacity)을 보유한 OPEC 내 주요 산유국으로, 공급 차질 발생 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탈퇴는 단순한 회원국 수 감소를 넘어 OPEC·OPEC+ 생산조정 체계와 국제 원유시장 운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1960년 9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5개국이 결성한 산유국 협의체. 회원국의 석유 정책 조정을 통해 국제 원유시장의 가격 안정과 회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UAE의 탈퇴 이전 회원국은 12개국이었음

** OPEC+: 2016년 12월 OPEC 회원국과 러시아·멕시코·카자흐스탄·오만 등 비OPEC 주요 산유국이 결성한 협력체. 국제유가 하락에 대응하여 산유국 간 감산 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함. 회원국별로 생산쿼터를 배분하여 공급량을 조정함

UAE의 OPEC 탈퇴 결정의 배경

UAE의 원유 생산능력 확대

UAE는 최근 수년간 원유 생산능력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UAE 국영석유회사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는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일일 원유 생산능력을 50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OPEC+ 체제는 회원국별 생산쿼터를 기반으로 감산과 공급조정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UAE는 중동 분쟁 이전까지 일일 약 300만 배럴 수준의 생산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OPEC+ 쿼터 목표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UAE가 추진 중인 생산능력 확대 규모는 기존 쿼터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동 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UAE의 실제 원유 생산량은 일일 180만~210만 배럴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UAE 경제구조의 변화

UAE는 비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다각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세프 알 오타이바(Yousef Al Otaiba) UAE 주미대사는 2026년 5월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UAE GDP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만이라고 밝혔다. 또한 UAE가 항공, 물류,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 관광, 생명과학 등 비석유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AE는 최근 4년간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케냐, 말레이시아, 베트남, 요르단 등과 35건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며 경제협력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1조 4,000억 달러(약 2,105조 원) 규모의 투자·기술 파트너십에 합의하였다.

FT는 이러한 흐름이 전통적인 산유국 중심의 경제구조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UAE는 원유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분야 투자도 병행하고 있으며, 국영 재생에너지 기업 마스다르(Masdar)는 40여 개국에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수출 인프라 확충 현황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내에서 실질적인 공급 조정 능력을 보유한 핵심 산유국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여유 생산능력이 4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양국은 그중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유가 변동과 공급 충격 발생 시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UAE는 이러한 생산 여력을 실제 수출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푸자이라(Fujairah)* 방향의 신규 서동 송유관(West-East Pipeline)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출 경로와 연결되며, 완공될 경우 ADNOC의 수출능력은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UAE의 원유 수출 경로 다변화와 공급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UAE는 신규 송유관, 항만 시설, 물류 인프라 전반에 걸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원유 수출 체계의 병목을 완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푸자이라(Fujairah):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로, 인도양의 오만만 연안에 위치함. 호르무즈 해협 외부에 자리해 해협을 거치지 않는 원유 수출 거점으로 활용되며, 세계 주요 선박 급유 허브 중 하나로도 기능함

원유 시장 영향

국제 유가 동향과 전망

2026년 5월 기준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브렌트유 7월물 증가는 배럴당 109.26달러(약 16만 3,800원),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월물 증가는 배럴당 105.42달러(약 15만 7,800원)를 기록하였다. 이는 분쟁 이전 배럴당 65~70달러(약 9만 7,700원 ~ 약 10만 5,200원) 수준이었던 국제유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향후 원유 수급은 걸프 지역의 생산 회복 여부와 UAE의 추가 공급 확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 이전 글로벌 원유시장은 수요 대비 일일 200만 배럴 이상 초과 공급 상태였으며, 초과 물량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전략비축유 확보와 해상 저장 증가분으로 시장 내에서 소화되었다.

중동 분쟁 종료 이후 걸프 지역 생산이 정상화되고, UAE가 일일 100만~150만 배럴 규모의 추가 공급에 나설 경우 글로벌 원유시장은 다시 공급 과잉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에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추가 공급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OPEC 생산조정 체계 변화 가능성

UAE의 탈퇴는 OPEC·OPEC+ 의 글로벌 공급 통제력 약화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 정책 균열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에콰도르도 과거 OPEC에서 탈퇴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상황이었고 에콰도르는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았던 만큼 OPEC 운영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UAE는 비걸프 회원국 대비 생산 규모가 두 배 이상이며, 일일 100만 배럴 이상의 추가 생산 확대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UAE의 탈퇴는 과거 탈퇴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평가된다.

OPEC은 과거 유가 급락 국면에서 일정 기간의 혼란을 거친 뒤 생산조정 기능을 회복해 온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1986년, 1998년, 2014년, 2020년 가격 급락 시기를 거치며 감산 합의와 생산조정 체계를 복원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UAE 탈퇴가 OPEC·OPEC+ 체제의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공급조정 과정에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 산유국 간 정책 환경

UAE의 탈퇴는 OPEC의 실질적 주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 정책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UAE는 이번 결정이 회원국 간 분열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생산능력 확대와 수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온 UAE의 전략은 감산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온 OPEC+의 운영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공급 과잉 국면이 재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으로 감산을 확대해 국제유가를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AE가 OPEC 밖에서 생산 확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양국 간 정책 긴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UAE 역시 국제유가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Forbes는 이 경우 UAE가 OPEC에 재가입하거나 OPEC+ 체제 내에서 사실상 협력국 형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점에서 UAE의 탈퇴는 단기적으로 OPEC의 공급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수준과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여지가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UAE 탈퇴의 의미와 OPEC 체제 변화 전망

UAE의 OPEC·OPEC+ 탈퇴는 단발성 정책 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년간 진행되어 온 생산역량 확대, 경제 다변화, 수출 인프라 확충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된다. UAE는 2027년까지 일일 생산능력을 50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비석유 부문이 GDP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구조도 전통적인 산유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회원국 간 감산 분담을 전제로 운영되어 온 OPEC+ 체제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며, 이번 탈퇴는 그 차이가 표면화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약 15만원)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UAE 탈퇴가 즉각적인 가격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걸프 지역 생산 정상화, UAE의 추가 공급 확대, 이란 제재 해제 가능성이 함께 작용할 경우 글로벌 원유시장이 다시 공급 과잉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OPEC·OPEC+ 체제 자체의 단기적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공급 통제력은 잔여 회원국 간 감산 분담 방식,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책 대응, UAE의 실제 생산 확대 속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환경 변화와 국제유가 흐름이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UAE의 생산능력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우회 수출 경로 구축은 한국의 원유 도입 경로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OPEC+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은 국제유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수입 비용과 정유·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동 분쟁 종료 시점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추이, 중장기적으로는 UAE의 실제 생산 확대 일정과 OPEC 잔여 회원국의 정책 대응 방향이 한국 에너지 수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CNBC, "UAE says its decision to leave OPEC was a strategic economic move, not a political one", 2026.5.16
- Gulf News, "UAE says OPEC exit driven by national interests", 2026.5.16
- Reuters, "UAE says OPEC, OPEC+ exit was sovereign strategic decision, not political move", 2026.5.16
- Forbes, "U.A.E.'s Exit Does Not Mean The End Of OPEC", 2026.5.15
- Financial Times, "Why the UAE really left Opec", 2026.5.6
- Teh Economic Times, "UAE's OPEC exit: With cartel cracked, oil spills over geopolitics", 2026.4.29
- Aljazeera, "What are OPEC and OPEC +, and why has the UAE quit?", 2026.4.28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 국가 네트워크 관계 분석 목적

국가간 발생한 다양한 월간 이슈에
대한 통합된 정보 제공

데이터 수집원

종합언론지 | 비즈니스 매체 | 관영 매체

웹크롤링

뉴스 DB

45,000 ~ 50,000건/Month

LSTM
(문서분류)

Non Spam 뉴스 DB

키워드
상관분석

국가간 상관 데이터셋

Spam 뉴스 DB

사건사고 기사



재난재해 기사



행사정보 기사



기상정보 기사



생활정보 기사



스포츠정보 기사



상관 값 국가① 국가② 국가③ 국가④ 국가⑤

키워드 ①	0.0	0.1	0.0	0.1	0.0
키워드 ②	0.1	0.0	0.0	0.1	0.1
키워드 ③	0.1	0.7	0.6	0.1	0.1
키워드 ④	0.9	0.2	0.5	0.2	0.5
키워드 ⑤	0.0	0.1	0.2	0.2	0.1

ex) 국가②와 국가③은 키워드 ③과 연결되어 있음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① 데이터 수집

주요 신흥국가종합언론지, 비즈니스매체, 관영매체 351건으로부터 정치/경제/사회뉴스 기사들을 일일 수집하고 있음
현지트래픽 비율과 관계자인터뷰를 통해 유력매체유무를 검증하고 있으며 월 기준 45,000~50,000개 데이터를 수집함

(*) 수행사례 '러시아/유라시아 데이터 수집'

No	권역	국가	정보원	URL	현지 트래픽
1	인도·남아시아	네팔	Aarthiknews	english.aarthiknews.com	94.10%
2		인도	The Economic Times	economictimes.indiatimes.com	89.30%
3		아프가니스탄	Pajhwok Afghan News	www.pajhwok.com/en	24.80%

... (인도·남아시아 : 총 65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러시아 유라시아	몽골	DN	dnn.mn	95.40%
2		러시아	the Moscow Times	themoscowtimes.com	95.26%
3		유라시아	CA-News	ca-news.org	91.97%

... (러시아/유라시아 : 총 69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동남 아시아	베트남	Thanh Nien	www.thanhniennnews.com	93.59%
2		말레이시아	Free Malaysia Today	www.freemalaysiatoday.com	92.25%
3		필리핀	The Manila Times	www.manilatimes.net	89.16%

... (동남아시아 : 총 3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동부 유럽	슬로바키아	SLOVAK SPECTATOR	spectator.sme.sk	89.52%
2		불가리아	Dnevnik	www.dnevnik.bg	85.21%
3		세르비아	B92	www.b92.net/eng	78.14%

... (중동부유럽 : 총 5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남미	페루	ANDINA	andina.pe/ingles	97.10%
2		베네수엘라	Today Venezuela	todayvenezuela.com	95.10%
3		콜롬비아	Explica	www.explica.co	91.30%

... (중남미 : 총 32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1	중동 아프리카	남아공	News24	www.news24.com	91.94%
2		쿠웨이트	Kuwait Times	news.kuwaittimes.net	91.66%
3		사우디아라비아	Eye of Riyadh	www.eyeofriyadh.com	90.57%

... (중동아프리카 : 총 111개 데이터 수집원 등록)

월간정세 이슈 선정 프로세스

② 스팸 분류

수집된 뉴스기사 중 하기 유형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머신러닝 방법론을 통해 배제함

머신러닝 모델로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 Model)을 적용 _분류 정확도는 약 89.8%

※ 정확도: (정확히 추출된 결과 정보의 수 / 전체 결과 정보의 수) *

스팸 문서분류 기준

- 사건사고: 교통사고, 살인, 성범죄 등
- 재난재해: 화재, 지진, 홍수 등
- 행사정보: 전시회, 콩쿠르, 엑스포, 월드컵 등
- 기상정보: 일일 기상뉴스 정보
- 비즈니스 및 생활정보: 경영 정보, 생활 노하우 등
- 스포츠 정보: 축구, 배구, 농구, 크리켓 등 정보
- 기타: 수상 및 시상 정보, 유명인사 사망 정보, 단순 증시 등락 정보

③ 키워드 상관 분석

월간정세 이슈 분석은 '국가간에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하여 **특정 권역 이슈의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별 네트워크 분석(SNA)을 진행하고 있음

Step 01. 동시출현 단어(Co-occurrence) 데이터셋 만들기

단어의 연결성을 찾기 위해 단어간에 동시에 출현한 데이터셋을 생성함

※ 상관계수: 키워드 a와 키워드 b가 함께 변하는 정도 / 키워드 a와 b가 각각 변하는 정도

Step 02. 국가별 관련 기사 조사

관계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국가별 실제 기사를 조사하고 주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함

No.	매체명	국가	기사 제목
01	Tass	러시아	Putin Signs Law Revoking Nuclear Test Ban Treaty
02	Tass	러시아	US seeking to deploy missile systems banned by INF Treaty — Russian diplomat
03	Tass	러시아	Experts see no alternatives to CFE treaty for decades due to NATO's anti Russian stance
04	CNBC	글로벌	NATO rebukes Russia for withdrawing from post Cold War treaty; Kyiv slams talk of 2024 elections
05	ABC News	글로벌	Putin signs bill revoking Russia's ratification of a global nuclear test ban treaty
06	BBC	글로벌	Putin pulls Russia out of nuclear test ban treaty
07	BBC	글로벌	US, NATO Follow Russia in Dropping Out of Europe Arms Treaty

Step 03. 보고서 시각화